

대한킥복싱협회, 정상화·미래비전 선포

한국 킥복싱에 '새 바람'

제5대 김현영 회장 취임
전국선수권대회도 개최
제도약·새출발 알려

대한킥복싱협회가 제5대 김현영 회장 취임과 함께 협회 정상화 및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킥복싱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대한킥복싱협회는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2026 대한킥복싱협회장제 전국 킥복싱 선수권대회와 '제5대 김현영 대한킥복싱협회장 취임식', '대한킥복싱협회 정상화 및 미래비전 선포식'을 함께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킥복싱협회의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대한민국 킥복싱의 화합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전국 각지의 선수와 지도자, 시·도협회 관계자, 체육계 인사 및 협회 임원들이 참석해 협회의 새 출발을 함께 응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춘진 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 사장, 김인권 전 정읍시장공회회소 회장, 김동진 대한체육회 이사, 이정복 대한펜싱협회 부회장, 문병량 전북도 사무처장 등 체육계 및 지역 주요 인사를 비롯해 전국 선수 지도자 협회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전국선수권대회와 함께 진행되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국내 킥복싱 활성화를 위한 장으로 운영됐다. 또한 회장 취임식과 정상화 선포식을 통해 협회 운영체계 재정비, 선수 중심 행정 시·도 조직 활성화, 국제대회 경쟁력 강화 등 향후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대한킥복싱협회가 지난 16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2026 대한킥복싱협회장제 전국 킥복싱 선수권대회와 '제5대 김현영 대한킥복싱협회장 취임식', '대한킥복싱협회 정상화 및 미래비전 선포식'을 함께 연 가운데, 김현영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국 킥복싱 선수권대회에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들

김현영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킥복싱협회가 다시 신뢰받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화합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수화 지도자, 시·도협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협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영 회장은 "대한민국 킥복싱이 국내를 넘어 국제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WAKO 국제체계에 기반한 국가대표 운영, 국제대회 참가 확대, 지도자·심판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킥복싱협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협회 후속 조치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각 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선수등록 체계 정비, 전국대회 지속 개최, 체육관 참여 확대, 유소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협회는 향후 대한체육회 재가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 조직 정비, 대회 운영 실적 확보, 회계 투명성 강화, 이사회 중심의 책임 운영, 국제연맹 체계와의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중계를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됐으며, 언론 보도와 현장 기록을 통해 협회의 정상화 의지와 대외 활동이 확인됐다. 협회는 이번 대회와 선포식을 대한민국 킥복싱 제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고, 선수와 지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 운영체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킥복싱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취임식이나 대회가 아니라 협회가 다시 정상적인 운영체제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체육관과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한민국 킥복싱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난해 잠바브웨에서 열린 태권도 교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태권도 봉사단 지원자 역대 최다

150명 신청... 태권도진흥재단, 면접·실기 전형 50명 선발
7-8월 중심으로 멕시코·크로아티아 등 해외 8개국에 파견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은 '청년 케이(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태권도 보급과 한국 문화 홍보 활동을 수행할 2026년 태권도 봉사단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150명이 몰리며 역대 최다 지원자를 나타냈다.

태권도 봉사단은 34세 이하로 태권도 3단 이상을 보유한 청년 태권도인을 단원으로 선발하여 해외에 파견한다. 태권도와 우리 문화를 파견국에 보급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올해는 멕시코, 크로아티아 등 8개국에 50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 진행되는 봉사단원 면접 및 실기 심사에서는 태권도 기술 수준 평가와 함께 해외 파견에 대한 동기, 의지를 밝힐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 케이(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취지를 살린 가운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 및 실기 심사 통과자들은 오는 7월, 태권도원에 모여 집합교육에 참가한다. 태권도 지도법과 응급 처치, 성인지 교육 등 집합 교육 이수 후 최종 봉사단원을 선발하고 7월부터 8월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2주간의 일정으로 각자의 파견국에서 태권도 및 한국 문화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번 파견을 통해 국기 태권도와 케이 컬처 확산을 비롯해 청년 태권도인들에게 해외 활동 경험을 제공하고 향후 진로 설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2022년부터 태권도 봉사단원을 선발해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태권도 봉사단 활동은 태권도진흥재단 누리집과 태권도원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무주=송홍기 기자

생활체육 동호인들 진안에 모였다

진안군체육회 주최 '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성료

진안군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체육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진안군은 지난 14일과 16일 '2026년 체육회장기 종목별대회'가 진안군체육회 주최 진안군종목별협회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대회는 지난 14일 게이트볼 경기를 시작으로 16일에는 그라운드골프, 축구, 당구, 수영, 배드민턴, 승마, 궁도, 육상 등 총 9개 종목이 진안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일원에서 진행됐다.

대회에는 학생부와 일반부, 장애인부 선수 및 임원 등 800여명이 참가해 종목별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다양한 연령층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기고 종목 간 교류와 친목을 다지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경기마다 뜨거운 열정과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고, 경기장 곳곳에서는 응원과 교류가 이어지며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정봉운 진안군체육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생활체육 동호인 간 소통과 화합을 더욱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내장산·옥정호 구간서 질주... 정읍시 전국 자전거대회

정읍시가 지난 16일 내장산 일원에서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6년 정읍 내장산 그라운드(장거리 자전거 대회)와 메디오폴도(중거리 자전거 대회)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자전거연맹이 주관했다. 참

가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대회장을 찾아 평소 갖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다.

경기 종목은 118.4km를 달리는 장거리 코스와 82.2km를 달리는 중거리 코스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선수들은 내장산위터파크를 출발해 내장산과 옥정호를 지나는 구간을 달렸다.

이후 정읍 시내와 순창군 일원을 거친 뒤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경로를 완주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자전거를 타며 신록의 정취를 즐겼다.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 완주의 기쁨도 나눴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6 정읍 내장산 자전거대회.

